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 동방 선조디왕 직위 초의 훈양 성니의 훈 지상이 잇스되
 성은 이씨요 일흠은 득춘이라. 어려서부터 학업을 심씨던이 십
 세전의 문필과 지덕이 일국의 유명하고 지인지감이 과인하기
 로 소년등과하여 벼살이 일품의 잇서 국가을 충성으로 섬기고
 만인을 인의로 가라치니 위엄과 명망이 스희의 진동하더라. 총
 명명오하야 얼굴이 준수하고 풍치 늙늙하야 두목지에게 비하
 니 이갓튼 인지는 아 동방 명현이라. 겸하야 술법이 유명하고
 겸인지용을 가져스니 진실노 일디 영웅이라. 일직 실하의 일기
 옥동즈을 두었스되 문일지십하야 지각이 과인하고 골격이 준
 슈하니 상공이 크게 사랑하야 일흠을 시백이라하다.

츠시에 상공이 바돌 두기와 옥저 불기를 죠아하되 압두할 스
 람이 업스미 요적한 찌에 명월을 디하야 옥저을 부르면 도화
 무궁하야 화계의 피엿던 소시 절노 찌러지니 이갓튼 지조는 실
 노 일국의 제일이라. 상공이 바돌과 옥저 부난 적슈을 엿지 못
 하야 근심하더니 일일은 엿더한 스람이 폐의폐관으로 모양이
 추비하디 사랑 압피 와서 유숙하기를 청하거늘 쯔셔히 보니 비
 록 의관은 남누하나 위인이 범인과 다른지라 상공의 명감으로
 이갓튼 도인을 모로리요. 쯔흔 니렴의 심각하되 쯔 스람이 근
 본 천인갓트면 당돌이 당상의 오르리요 분명코 범인이 아니라
 하고 가로디 “엿더한 귀직인지 모로건지와 누쥬한 고디 오시
 난잇가” 하며 당의 오르기를 청하신이 그 스람이 당의 올라 좌
 을 정한 후의 서로 성명을 통할시 그 스람이 가로디 “비인은 무
 가직이라 명산디찰을 차저단이며 미륵으로 벅슬 삼어 세월을
 보나더니 지금은 연만하기로 강산을 편답하다가 훈갓 금강산
 의 유점하야 죽기만 바리오며 성은 박이요 세상스람이 부르기
 을 처스라 하나이다” 하거날 상공이 그 언어 정직함을 듯고 과
 연 선인인 줄 알고 그제야 염실단좌하야 공경디왈 “저러하신
 귀직이 엿지하야 누지에 옥임하시난잇가.”

처스 디왈 “나는 산중의 처하야 바돌 두기와 옥저 불기만 죠
 아하더니 풍편의 듯스오니 상공게옵서 쯔흔 날과 갓치 바돌과
 옥저을 죠아하신다 하기에 구경코즈 하야 왔나이다” 훈디 상
 공이 드르미 적슈을 엿지 못하야 훈하던 츠의 반갑기 층양치
 못하나이다 “옥저 불기야 엿지 선인의 곡조를 짜라 화답하오
 랫가. 그러나 용열한 통쇼라도 존직의 가라치심을 바를가 하와
 주인이 먼저 부나이다” 하고 훈 곡조를 부니 청이한 소리 구름
 밧기 나난듯한지라 그 소리 근처미 창전의 모란화소시 숨이숨
 이 찌러져 화계상의 가득하거날 처스 그 거동을 보고 칭찬하
 다 왈 “주인의 청이한 곡조만 듯고 직이 엿지 화답지 안이하
 면 인스가 안이로소이다” 하고 그 옥저을 부려 화답하니 그 소
 리 가장 청이하야 청천의 나난듯 청학 빅학이 그 소리 듯고 춤

도 춤며 선동도 내려와 압피서 넘노난듯 하더니 그 소리 근처
 미 창전의 찌러졌던 모란화송이 다시 피여 난만흔지라. 상공이
 그 거동을 보고 디찬 왈 “날갓튼 용둔한 지조라도 세상사람이
 보고 층찬 안이하리 업스며 니의 통쇼난 부러져 솟숨이만 찌러
 지던이 선인의 통소 소리는 봉황이 나라들고 낙화 다시 만발하
 니 옛날 장즈방의 곡조라도 비하지 못하것나이다” 하고 인하
 야 서로 주직이 되야 바돌과 통소로 화답하야 소일하던이 일일
 은 처스 상공게 청하야 왈 “듯스온이 상공게옵서 귀즈을 두었
 다 하니 보기를 청하나이다.”

상공이 시백을 부르신이 승명하고 나오거늘 처스 자셔이 보
 니 만고의 영웅이요 일디 호걸이라. 쯔흔 조선 명분을 심각하
 니 일후의 출장 입신하야 일국 지상이 될 기상이라. 안마음의
 깃부음을 이기지 못하야 상공게 청하야 왈 “비인이 상공게 차
 저옵기는 다름안이오라 훈 말삼을 부탁고져하여 완나이다.” 공
 이 디왈 “무삼 말삼을 부탁고져 하난잇가” 처스 디왈 “비인이
 일여을 두었스오나 연광이 이팔이 되도록 가연을 정치 못하엿
 삽기에 쥬류 스희하야 단이며 구하옵던이 다형이 존문의 이르
 러 귀즈을 보온이 마음의 합당한지라. 여식은 용둔하나 존문의
 가이 용납할 만하오니 외람하오나 정흔하미 엿더하온잇가.” 상
 공이 심각한직 처스 도덕이 저러할제 그 쯔식이야 엿지 민
 지 안이하리요 하고 디왈 “직은 선인이요 나는 진세간 인물이
 라 선인과 엿지 혼인하리요” 훈디 처스 디왈 “상공은 일국 일
 품이요 나는 미천한 인물이라. 귀직의 의혼함이 극히 불가하오
 나 바리지 안이하시면 한이 업실듯 하나이다.” 상공이 디하야
 직시 허흔하니 처스 쯔흔 것거 직시 혼인날을 가리니 삼월 망
 간이라. 혼인을 완정하 후의 주찬을 니여 서로 권하며 청풍누
 각의 바돌 두기와 명월창외에 옥저 불기를 소일하더니 일일은
 처스 작별하고 분슈을 고후거늘 못니여 서로 창연하나 불가불
 분슈 상별하고 처스난 산중으로 도라간이라.

차시에 상공이 제족을 모히고 박처스의 여식으로 정흔한 말
 삼을 설화하시니 부인과 제족이 의심하여 왈 혼인은 인간디스
 요 일윤의 지중한지라 엿지 지상가의셔 그 스람의 근본도 모르
 고 경선이 허락하여 겨신잇가. 상공이 소왈 니 능히 박처스의
 여식이 지덕이 금세의 유명하기로 허락하엿스니 제족은 부질
 업시 시비를 말라 하더라. 츠시에 혼인날이 당하미 혼구를 차
 리여 노복등을 거나리고 질을 찌날시 상공은 후직이 되야 시
 백을 다리고 시백은 금안준마의 조복을 갓초와 길을 찌나 금
 강산을 차저가난 거동은 청춘호걸이 풍치도 조건이와 기구도
 찰난하디. 이갓튼 경스의 제족이 비우시며 쯔정 의논이 분운하
 더라.

「A」 여러날만의 강산을 차저 드러간이 풍경도 조건이와 찌
 | 도 마짐 삼춘이라 좌우산천 둘러보니 각식 화초 만발

흔디 봉접은 펄펄 나리드려 쏘슬 보고 춤도 추며 양유 느러진 가지에 황금 갓튼 쇠고리 환우성이 더욱 좇다. 풍경을 구경하며 점점 드러간이 인적은 고요흔디 소형 무정이라. 하리읍시 주점을 차져 쉬고 잇튼날 다시 발 힝햐 산곡으로 드러간이 인적이 업난지라. 칭암절벽은 반공의 소스잇고 간슈난 잔잔골골의 흘너잇고 빗죽시는 실피 우리 허랑흔 사람을 비웃난듯 두견시는 실피 우리 심회 잇난 스람을 도읍난지라.

상공이 조끼스를 싱각흔직 도로혀 허탄흔지라. 후회막급이 로다 쏘흔 일모햐 산중의 방황흔더니 숙쇼는 투림흔고 월출 동영이라. 하릴읍시 쏘다시 주점을 차져 쉬고 그 잇튼날 산곡으로 드러가니 심산궁곡의 길은 끈어지고 사고무인 문무쳐라. 세궁역진흔고 기갈도 심흔지라. 석상의 좌을 정흔고 노송을 의지햐 쯔탄 왈 니의 일을 싱각하니 남양초당 풍설중의 와용 선싱을 차져온듯 슈양산 집푼 고디 빅이숙제를 차져온 듯 허랑흔물 자탄흔던이 호련 산곡으로 소리나며 초동 슈십인이 나려 오거늘 상공이 반겨 왈 “저기 가는 저 아희야 니의 말을 잠간 드러보쇼. 이고시 어니 고시며 주점은 어디 잇난가. 힝킵의 아득흔 마음을 인도함이 엇더흔요”

초동이 답왈 “이 산은 금강산이요. 이 길은 박쳐스의 스던 골노 통흔 길이웁고 우리는 지금 박쳐스 스던 골노 죠츠오난이다.” 공이 문왈 “지금 처스 집의 계시던야” 초동이 디왈 “박쳐스 잇단 말은 옛노인이 일너 계시기를 슈빅연 전의 엇더흔 스람이 구목위쇼흔고즈 식목실흔며 별호를 박쳐스라 헉더이다” 헉고 다시 디왈 “우연이 간 고슬 아지 못헉건이와 지금 산단 말은 금시 초문이로쇼이다.” 쏘 문왈 “쳐스 그 고디셔 스던 찌가 지금 몇히나 되냐냐” 초동이 미쇼 답왈 “게셔 산 제가 스빅 연이라 헉더이다” 헉며 다시는 무려도 디답지 안이헉고 가거늘 상공이 이 말을 듯고 더욱 망극햐 양천디쇼헉며 쯔탄 왈 “세상의 허탄흔 일도 만헉도다” 탄식을 마지안이헉며 왈 “이발 지셰라” 하릴읍셔 노복을 다리고 주점의 도라와 유할시 시빅이 쏘흔 부친을 위로 왈 “옛날의 혼무제도 신션을 구햐다가 필경 의난 구치 못헉고 ㉠ 분슈 춘풍의 후회막급헉엿사온니 아무리 햐야도 찢디 업스온 이 도로혀 ㉡ 회정함만 갖지 못헉나이다” 헉디 상공이 우어 왈

01

서술상 특징 파악 · 객관식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과 성품을 제시하여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 ③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사건의 비현실적인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⑤ 대화보다는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 사건을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02

내용의 사실적 이해 · 객관식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상공은 박 처사의 남루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범함을 알아보았다.
- ② 박 처사는 이 상공과 자신의 공통된 취미를 계기로 이 상공을 찾아오게 되었다.
- ③ 이 상공은 박 처사의 도덕적 깊이를 신뢰하여 아들의 혼사를 즉시 결정하였다.
- ④ 이시백은 박 처사의 딸과 혼인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큰 기대를 품었다.
- ⑤ 이 상공의 친척들은 박 처사의 근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혼사를 반대하였다.

03

인물의 말하기 방식 분석 · 객관식

이 상공과 박 처사의 대화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상공은 자신의 재주를 낮추어 말하며 상대방의 능력을 높여 예우하고 있다.
- ② 박 처사는 자신의 신분을 숙여 상대방의 진심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이 상공은 사회적 지위를 내세워 박 처사에게 혼인 조건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다.
- ④ 박 처사는 자신의 딸이 가진 재주를 과장하여 이 상공의 허락을 유도하고 있다.
- ⑤ 이 상공은 박 처사의 제안을 거절하기 위해 신분적 차이를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

04

소재의 기능과 의미 · 객관식

윗글에서 '옥저(통소)'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된다.
- ② 인물의 비범한 능력을 시각적 변화를 통해 입증한다.
- ③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게 하여 인물의 죄책감을 유발한다.
- ④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 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물아일체의 경지를 부정한다.

05

종합적 감상과 비평 · 객관식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 소설에서 '신선 세계'와 '인간 세계'의 만남은 흔히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존재가 남루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인공의 안목을 시험하는 '변신 모티프'는 독자에게 긴장감을 부여한다. 또한, 주인공이 신비로운 존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난(금강산 여정)을 겪는 과정은 인물의 신의를 시험하는 장치이자, 세속적 가치와 초월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준다. 특히 결말부에서 인물이 겪는 당혹감은 인간적 한계 내에서 신비 체험을 수용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 ① 이 상공이 박 처사의 겉모습만 보고 문전박대하지 않은 것은 주인공의 안목을 시험하는 '변신 모티프'에 부합하겠군.
- ② 박 처사가 연주를 통해 떨어진 꽃을 다시 피게 한 것은 그가 '초월적 가치'를 지닌 신선 세계의 존재임을 암시하는 것이겠군.
- ③ 이 상공이 제족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으로 향한 것은 신비로운 존재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신의'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금강산 여정에서 길을 잃고 기갈을 느끼는 장면은 세속적 인물이 신비로운 세계에 접근할 때 겪는 '인간적 한계'를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초동들이 박 처사가 수백 년 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상공이 겪은 신비 체험이 결국 허구였음을 깨닫게 하려는 장치이겠군.

06

구절의 의미 추론 · 객관식

㉠ '분슈'의 문맥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시백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운명을 겸허히 수용하며 부친의 결정을 끝까지 따르려 하고 있다.
- ② 신선과의 인연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임을 인정하고 있다.
- ③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부친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신의를 저버린 데서 기인한 것임을 비판하고 있다.
- ⑤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 신비로운 존재와의 약속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07

사건의 전개와 구조 · 객관식

[A] 부분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이 겪게 될 비극적 결말을 복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자연물의 감정이입을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막막하고 쓸쓸한 심경을 부각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대한 묘사를 생략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화려한 자연 경관과 인물의 처지를 대비시켜 인간의 유한함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인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자연의 생명력이 회복되는 모습에 투영하고 있다.

08

인물의 심리 및 태도 변화 · 객관식

금강산 여정 중 이 상공의 심리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확신과 기대 → 당혹과 고난 → 허탈과 자탄
- ② 의심과 경계 → 호기심과 탐색 → 확신과 기쁨
- ③ 분노와 원망 → 체념과 수용 → 반성과 성찰
- ④ 불안과 초조 → 안도와 평온 → 환희와 예찬
- ⑤ 무관심과 냉소 → 열정과 몰입 → 상실과 비탄

09

어휘의 문맥적 의미 · 객관식

밑줄 친 ㉠ '회정'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머무름
- ② 목적지를 바꾸어 새로운 길로 나아감
- ③ 가던 길을 돌이켜 원래의 곳으로 돌아옴
- ④ 험난한 길을 극복하고 끝내 목적지에 도달함
- ⑤ 타인의 권유를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음

10

핵심 개념의 정밀 분석 · 객관식

윗글에 나타난 '박 처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속적인 의관에 얽매이지 않는 탈속적인 경지의 인물이다.
- ②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을 지녔다.
- ③ 자신의 딸을 위해 인간 세계의 명망 있는 가문과 인연을 맺고자 한다.
- ④ 이 상공과의 예술적 교감을 통해 신선 세계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한다.
- ⑤ 인간 세계의 시간 흐름과는 다른 차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상공이 제족(친척들)에게 한 말에 담긴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안목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타인의 비판을 차단하려 한다.
- ② 혼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여 문중의 결속을 다지려 한다.
- ③ 박 처사의 가문이 지닌 세속적 권위를 내세워 반대를 무마하려 한다.
- ④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 가장으로서의 위엄을 세우려 한다.
- ⑤ 신선 세계와의 결합이 가문에 가져올 실질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 상공이 자신을 '남양초당의 와룡선생을 차려온 듯'하다고 비유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박 처사를 삼고초려하여 얻어야 할 소중한 인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자신의 정성이 부족하여 박 처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자책을 표현한 것이다.
- ③ 훌륭한 인물을 만나기 위해 겪는 고난을 영웅적인 행위로 미화하기 위함이다.
- ④ 현실에서 실현 불가능한 꿈을 쫓는 자신의 처지를 고사에 빗대어 탄식한 것이다.
- ⑤ 박 처사가 자신을 도와 난국을 타개해 줄 정치적 조력자임을 확신하고 있다.

〈보기〉는 윗글의 '초동'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떤 나그네가 구름을 헤치고 청학동을 찾아가다가 길에서 한 나무꾼을 만났다. 나그네가 "이곳에 신선이 산다는 청학동이 어디요?"라고 묻자, 나무꾼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곳은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당신처럼 세속의 욕심을 품고 온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법이요. 이미 당신은 그 입구를 지나쳐 왔소." 나그네가 뒤를 돌아보자 나무꾼은 간데없고 안개만 자욱했다.

- ① 윗글의 초동과 〈보기〉의 나무꾼은 모두 주인공이 찾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쥐고 있는 인물들이군.
- ② 윗글의 초동이 박 처사를 '수백 년 전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보기〉의 나무꾼이 신선 세계의 특수성을 언급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유사하겠군.
- ③ 윗글의 상공이 초동의 말을 듣고 '망극'해하는 것은 〈보기〉의 나그네가 나무꾼의 말을 듣고 허탈해하는 반응과 맥락이 닿아 있겠군.
- ④ 윗글의 초동은 박 처사의 집으로 가는 길을 구체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상공이 신선 세계에 진입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겠군.
- ⑤ 윗글과 〈보기〉 모두 신비로운 존재를 찾는 과정에서 만난 평범해 보이는 인물이 사실은 비범한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군.

윗글의 서사 구조를 고려할 때, 사건의 인과 관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상공의 비범한 안목 → 박 처사의 실체를 알아보고 정혼을 허락함
- ② 박 처사의 도술적 연주 → 이 상공이 그를 선인으로 확신하게 됨
- ③ 제족과 조정의 비난 → 이 상공이 금강산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게 함
- ④ 초동의 신비로운 증언 → 이 상공이 자신의 행위가 허탄함을 깨달음
- ⑤ 이시백의 현실적 조언 → 이 상공이 미련을 버리고 회정을 결심함

지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상공이 '우어 왈'이라고 한 것에 담긴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자조적 어조
- ② 상대방의 무례함을 꾸짖는 위엄 있는 어조
- ③ 잃어버린 인연을 그리워하는 애상적 어조
- ④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낙관적 어조
- ⑤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는 단호한 어조